

전남 어업 생산량 전국 최고

전국민이 반찬으로 즐겨먹는 미역과 다시마, 톳의 전국 생산량 대부분이 전남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지난해 총 어업생산량과 생산금액 등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어도'(漁道)임을 확고히 입증했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호남지역(2006~2010) 어업생산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남의 총 어업생산량은 101만2000t으로 전국 생산량의 40.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총 어업생산량은 지난해 2006년 93만6115t에서 2010년 101만1590t으로 8.1% 증가했다.

전국 비중 톳 100%·다시마 96%·미역 90%

지난해 101만2000t 생산...1조7425억원으로 1위

2010년 전남의 어업 생산금액도 1조7425억원으로 전국의 28.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어업 생산금액은 지난해 2006년 1조2531억원에서 2010년 1조7425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전남의 어업 생산금액도 1조7425억원으로 전국의 28.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어업 생산금액은 지난해 2006년 1조2531억원에서 2010년 1조7425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현해역어업의 생산량 83만4952t(61.6%)과 생산금액 1조1704억원(64.5%), 내수면어업의 생산량 7133t(23.0%)과 생산금액 1334억원(40.0%) 등도 모두 전국 1위였다. 일반 해면어업 부문에서는 생산량 16만9505t(14.9%)로 전국 3위였으며 생산금액은 7529억원(19.2%)로 전국 1위였다.

(2606t), 병어 38.6%(3423t), 갯새우 84.1%(1만5860t) 등이었다.

또 천해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김 65.7%(15만4652t), 미역 90.4%(35만5649t), 다시마 96.2%(23만2172t), 톳 100.0%(2만1133t), 전복 99.1%(617만t) 등이었고 내수면 어업 부문에서 뽕장어(60.2%)가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갈치는 11.5%로 4위, 멸치 17.4%로 2위, 송어 33.5%로 2위, 고등어 1.2%로 5위, 오징어 1.3%로 6위, 대구 0.1%로 10위, 꽃게 7.9%로 3위, 납치 38.5%로 2위, 붕어 20.0%로 2위, 미꾸라지 3.8%로 2위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8일 영광 대미발전산업단지에서 열린 (주)에코넥스의 직구동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기공식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혁규 에코넥스 회장(정경남지사), 정기호 영광군수 등이 기공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광에 '전기차 직구동 모터 공장' 착공

에코넥스, 대미산단에 800억 투자...1만5천대 생산

신개념 전기자동차 직구동 시스템 개발기업인 (주)에코넥스가 28일 영광 대미산업단지 내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에서 생산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혁규(전 경남지사) 에코넥스 회장, 정기호 영광군수, 에코넥스 협력사와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혁규 에코넥스 회장은 "누가 어느 나라가 경제성과 실용성 안 전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산업 브랜드와 경제 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공장건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에코넥스는 앞으로 8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만5000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영광 대미산단에 건설한다. 전기자동차는 휠에 모터를 직접 장착해 구동하는 시스템으로 이 회사가 지난 1996년부터 네덜란드 이트렉선사와 13년간 공동개발한 기술이다.

기존 디젤엔진 시내버스에 비해 최소 50% 이상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50%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어 지난해 독일 모터쇼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유럽 녹색 자동차 기술혁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 지원에 현지 시내버스를 실제 노선에 투입해 운행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전체 시내버스를 전기 직구동버스로 바꿀 계획이다.

대미산단서 생산된 전기직구동 시스템(인휠 모터)은 앞으로 5년간 매년 1만대씩 네덜란드 이트렉선사에 납품하는 등 생산량의 80%를 외국에 수출한다.

또 자회사인 (주)에코넥스 EDD와 함께 기존 버스와 화물차를 고쳐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승용차, 중형, 2차전지까지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에코넥스 공장 기공을 계기로 관련 부품업체 및 협력업체가 전남으로 상당수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그네슘 경량소재 등을 이용한 부품 경량화사업과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개발 사업에도 관련 기업들이 공동개발에 나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보증지원 1조원 돌파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총보증지원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광주신보는 지난 1996년 7월 설립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지원노력을 꾸준히 기울인 결과 지난 27일 기준으로 지원건수 5만4600여건, 지원금액 1조원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그동안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담당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영업자, 노점상 등 금융소외층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노력을 다져왔다.

지난해에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햇살론'과 '희망드림론' 등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금융소외층의 연 44%에 이르는 고금리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재욱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광주신보는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총보증금 1조원 달성을 계기로 서민금융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www.kwangju.co.kr**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례-유통법 마찰

북구 "상인 동의 얻어야" vs 이마트 "법 근거 없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와 상위법인 유통법에 충돌,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마트 개점 시 중소상인의 동의를 얻도록 자치단체에서 왔다뉘 제정한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유통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예고했던 마찰이 현실화된 것.

28일 광주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북구 마포동에 대형마트 개점 등록을 신청한 이마트에 대해 서류 보완을 재요구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19일 등록을 신청했으나 북구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관련 조례에 따라 슈퍼마켓 조합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서 등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동의서를

요구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안을 하지 않았다.

북구는 오는 29일부터 10일간 2차 보안을 요구하고, 다음달 8일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등록 처리 또는 반려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례를 따르려는 북구와 상위법을 내세우는 이마트 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정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비아 생쌀막걸리' 맛 못본다

탈세 혐의로 두번째 면허 취소

최근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광주 지역 막걸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던 '비아 생쌀막걸리'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비아 생쌀막걸리'를 주조하던 비아 탁주제조장이 지난 22일 주류제조 면허취소를 당해 지난 25일 이후 막걸리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비아 생쌀막걸리와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비아 탁주제조장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여 주세와 부가세, 소득세 등 1억8000여만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제조면허를 취소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이 업체의 탈세 혐의를 잡고 업체와 주 거래처인 모 탁주도매상을 대상으로 50여일에 걸쳐 지난 3년간의 주류거래 및 세금신고 내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최근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정문절차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들였으며 최근 다른 사람이 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서광주세무서에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제조면허 신청을 해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비아 생쌀막걸리 관계자는 "하루 600~700박스(20병 들이)를 생산하며 시장을 넓히던 중이었지만 국세청 조사를 받고 제조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면허자로 이름만 바꾸면 제조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제조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 국세청의 면허 취소 조치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아 탁주제조장은 이미 면허취소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면허취소다. /최재호기자 lion@

하이마트 거래소 상장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주)하이마트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7년 설립된 이 회사는 가전제품 소매업체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별 매출비율은 PC·TV·디지털제품 42.6%, 생활가전 33.2%, 모바일 7.0% 등이다.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이 지분의 38.7%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조467억원, 당기순이익은 1065억 원이었다. 이 회사 주권의 시초가는 29일 오전 8~9시에 5만3100원~11만8000원에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연필뉴스

새 얼굴

"중소 금융애로 해소·상생 지원"

강승구 외환은행 호남영업본부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28일 취임한 강승구(51) 외환은행 호남영업본부장은 "중소기업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인고객에게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인 강 본부장은 광주상고와 전남대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외환은행에 입행, 부산지점장, 목포지점장, 전주공단지점장 등을 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한방오리구이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쥬스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순 "발효 효소"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충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